

당진항, 환황해 물류 중심항 도약 날개단다

- 항만운영지원센터 첫 삽...세관·출입국관리·검역 기관 등 입주

당진항이 환황해권 물류 중심 항만으로 도약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당진항 항만운영지원센터'가 6월 11일 첫 삽을 떴다. 충남도에 따르면, 항만운영지원센터 기공식이 이날 당진항 고대관리부두 배후부지에서 주민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항만운영지원센터는 모두 69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955㎡로 건축된다. 입주 예정 기관은 CIQ(세관·Custom,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관련 기관, 당진시·평택항만청 출장소 등이다. 또 은행, 우체국, 식당 등 편의시설과 항만 관련 업체 등도 입주해 당진항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당진항 이용 기업과 단체가 출입국관리나 세관, 검역 등을 받기 위해서는 왕복 74km에 달하는 평택항까지 가야 해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도는 항만운영센터가 건립돼 본격 가능되면 항만서비스 향상은 물론, 당진항 경쟁력 세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서 김홍록 도 건설교통항만국장은 "항만운영지원센터가 건립돼 본격 가능되면 당진항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선순환 경제체계의 구심점으로, 21세기

환황해권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청신호 켜졌다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필요성 인정

평택~부여를 잇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당위성을 인정받으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충남도는 5월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에서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당위성이 인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고속도로 신설 부문에서 제2서해안이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은 새정부 들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출구조조성에서 SOC 관련 예산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사업 착수의 전기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성과라는 평가다.



이번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의 결과대로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될 경우 내년도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주무부처 및 정치권과 연계해 2014년 기본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관련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지·정체 해소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에서 충남도 부여군의 86.3km 구간에 대해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2008년 수립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으로 채택되는 등 중요성이 인정돼 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 활성화 기대

- 첨단제조유통 및 글로벌 체인호텔
등 7개 기업과 투자 MOU 체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충남 인주지구에 대한 1284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해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5월 21일 첨단제조유통 및 글로벌 체인호텔 등 7개 기업과 충남 인주지구에 대한 1284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잇달아 체결했다.

이번에 MOU를 체결한 제조 기업은 지능형 LED, 벽관, 자동차 부품, 건설기계 유통, 플라스틱 연결관 제조 등 독보적인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협약대상에는 라마다농판과 애플트리 등

글로벌 체인호텔 브랜드도 포함돼 그동안 미즈니스 숙박시설 낙후로 어려움을 겪던 충남 서북부 지역 기업인들의 숨통을 트워주는 것은 물론, 외국기업 유치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투자의향을 보인 이들 기업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풍부하게 위치해 있고, 기반시설 확충계획으로 향후 토지가치 증대가 예상되며, 대 중국 수출 인프라 여건이 잘 갖춰진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투자의 최적지로 판단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우수한 투자여건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시·증설이 어려운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다수의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투자유치가 예상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충남도, '미래 100년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



충청남도는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6월 17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의 위상 정립과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미래 100년, 충남의 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환황해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충남도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인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희정 충남도지사의 '충남도청 이전의 의미와 미래 비전'에 관한 기조강연에 이어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충남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고,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은 '환황해권 시대의 충남 발전방향'을 세언했다. 또 임옥상 미술연구소 대표는 '충청남도, 마나로 가자'라는 주제발표를 시행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정순오 한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인희정 지사와 주제 발표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토크방식의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제자와 참석자들간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충남발전연구원, 김홍신 작가 초청 특강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은 6월 14일(금)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소강당에서 개원 18주년을 맞아 김홍신 작가를 초청, "인생에도 사용설명서가 없다"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지난 15대·16대 국회의원과 전국대 석좌교수를 지낸 김홍신 작가는 충남 공주 출생으로 현재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충발연 개원기념식과 함께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김 작가는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등을 신술하게 들려주었다.

한편, 중발연은 특강 후 연구원 체육대회를 갖고 조직내 화합을 도모하기도 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운남성사회과학원과 학술교류 협약 체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은 중국 운남성사회과학원(원장 번자)과 6월 7일 학술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운남성사회과학원은 1980년에 설립된 운남성 유일의 종합사회과학연구기관

으로서 약300명의 연구원이 동남아연구소, 농촌 발전연구소 등 11개 부설연구소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동 연구 및 국제세미나 개최 △연구인력 교류 및 각종 정보 공유 등을 골자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모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충남도 안희정 지사, 충남도의회 김홍장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등도 참석해 협약식을 축하하며 상호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의 연구영토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면서 "사회·경제·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인식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충남발전연구원(위원장 박진도)은 부탄왕국 부탄 종합연구원(Center for Bhutan Studies and GNH Research, 원장-다쇼 카르마 우라, Dasho Karma Ura)과 행복지수를 중심으로 한 정책개발연구협약을 4월 25일 부탄종합연구원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부탄종합연구원은 1998년 설립되어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지역정책개발, 역사문화사원 등 사회과학 중심의 종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책기관이다.

향후 두 기관은 △행복연구 등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협력 △연구를 목적으로 한 상호 교류 및 정보 교환 △국제학술세미나 등 공동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 내용을 이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충발연은 '충남의 행복지수 개발과 정책방안 연구'를 계기로 부탄의 국민총행복위원회(GNHC) '카르마 치림' 장관을 비롯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등을 초청, "행복한 삶, 경제적 가치를 넘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올해도 행복연구는 계속 되고 있지만 이는 충남만의 관심사가 아닌 새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아젠다"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은 물론, 환경·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충남발전연구원, 부탄종합연구원과 행복연구 협약 체결

- 박진도 원장 "행복충남 실현 위한 정책연구에 적극 협력키로"

